

전후 여성교양과 문학사 연구의 실천성 확보를 위한 시론

김양선*

1. 여성문학 연구의 현재
2. 여성문학사 연구의 선화-여성문학 제도 연구
3. 여성교양 연구의 지류들-교양의 젠더화와 망탈리테
4. 문학/문화 교양의 젠더화와 실천성
5. 1960년대 여성문학사 서술의 이론적 정립-지성과 감성 사이, '신진'의 의미규정
6. 다시 1960년대라는 문제설정, 여성문학연구의 복수성, 여성교양 연구의 실천성

〈국문초록〉

본고는 최근 여성문학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195,60년대 여성문학사 연구, 여성교양 연구를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이 연구 경향들이 여성문학의 새로운 의제를 창출할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장 여성문학사 연구의 선화-여성문학 제도 연구'에서는 전후 여성문단의 형성과 여성문학의 제도화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3장 여성교양 연구의 지류들-교양의 젠더화와 망탈리테'에서는 문학/문화 교양의 젠더화를 다룬 연구들이 전후 여성의 '망탈리테'를 규명하고, 남성 지배 담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온 여성의 집단적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화 하는 작업이자 현재 여성-지성/지식의 위치성을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 한림대학교

‘4장 문학/문화 교양의 젠더화와 실천성’, ‘5장 1960년대 여성문학사 서술의 이론적 정립-지성과 감성 사이’, ‘신진’의 의미규정’에서는 남성의 공유기억과는 다른, 여성들의 망탈리테에 기반한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의 축조, 1960년대 여성문학의 세대론적 특성 규명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1960년대 여성문학의 특징은 세대론적으로 ‘신진’의 등장, 작품경향 상으로는 ‘지성’과 ‘감성’, 주제 상으로는 남성성의 위기에 대한 비판과 균열내기를 통한 여성작가와 독자 간의 공통감각 형성이라고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본격문학사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작가들의 대중소설 역시 순응과 일탈의 양가성을 수행했던 것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후 여성교양과 여성문학사 연구는 침묵당하거나 배제되어 온 여성의 주변적 정체성과 글쓰기 욕망에 역사성과 실천적 의제를 부여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 여성문학사, 여성교양, 문학/문화의 젠더화, 공통감각, 신진, 지성, 감성, 여성대중소설

1. 여성문학 연구의 현재

1990년대 이후 페미니즘 문학의 활성화와 연구자 풀의 확산에 힘입어 한국문학 연구 장에서 여성문학은 주요한 하위 연구 분야로 떠올랐다. 한국 근·현대문학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거나, 여성의 글쓰기가 지닌 문학사적, 텍스트 미학적 의미를 규명하려는 연구 성과들은 학술지 논문이나 비평, 단행본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이런 연구동향을 고려할 때 2000년대 이후 여성문학 연구 상황에 대한 실증적 고찰 및 비판적 점검을 토대로 향후 연구과제를 생산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한국여성문학 연구 경향을 대표할 수 있는 학회지를 대상으로 연구자의 성별, 분야, 연구주제를 검토한 바

있다.¹⁾ 그 결과 여성필자 93.5%²⁾, 현대문학연구 85%, 문학을 제외한 매체연구가 약 13%를 차지했다. 연구자의 성별, 세부 연구 분야가 여성 필자-현대문학 분야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 중 매체연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전체 여성문학 연구에서 비중이 적다하더라도 이 매체연구, 특히 잡지 및 신문매체 연구가 근래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화론적 연구, 문화/문학 제도 연구, 문화-교양 담론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³⁾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문학 연구에서 여성문학 연구가 거둔 성과는 크게 세 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여성의 시각’으로 국문학 전통을 재구성하기이다. 남성 중심의 문학사에 대한 문제제기와 다시 쓰기, 텍스트의 남성중심성 비판, 문학사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작가와 작품 발굴과 여성문학사 서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정전에 대한 재해석, 문학사에 대한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근대성, 식민성, 민족주의의 자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탈근대성, 탈식민주의 맥락에서 여성(성)의 전유과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젠더정치학의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여성이 식민화-탈식민화-재식민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남성(성)의 형성에 전유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식민지, 그리고 포스트 식민지 근대의 무의식을 해석하

-
- 1)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가 여성문학연구 분야를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이며, 이 중 연구대상 시기가 현대와 고전을 아우르는 <한국여성문학학회> 학술지를 대상으로 다루었다.
김양선, 「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전과 과제 -<한국여성문학학회>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 2) ‘여성’ 필자 쏠림 현상은 여성문학의 계토화로 보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활성화라는 현상과는 달리 여전히 이 분야 연구가 비주류이며, 소외된 분야임을 뜻한다.
 - 3) 매체연구 외에 여성문학 이론 관련 논문의 비중도 6.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2%의 통계수치 안에 포함된 논문들이나 ‘매체와 여성문학, 여성문화’, ‘전후 한국문화와 교양, 여성, 미디어의 젠더 정치-195,60년대 여성 잡지 『여원』의 문화담론’, ‘여성, 1950년대 문화지형’, ‘<사상계>의 시대와 젠더’ 등의 특집 논문들에서 여성문학연구가 문화연구, 매체연구, 전후 195,60년대 교양 및 지식 장의 분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두 연구 지류는 2000년대 중반까지 여성문학 연구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세 번째는 기존 문학 장 및 제도와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여성문학 장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식민지 시기와 전후 여성작가들의 등단과정에 대한 연구, 『여자계』, 『신여성』, 『여성』, 『여원』 등 여성잡지 연구, 여성교양 담론에 관한 연구, 여성-지식(지성)의 창출과정 연구 등이 연구 성과에 해당한다. 이런 연구경향은 다시 여성문학사 및 여성문학 장 형성 원리를 다룬 문학제도 연구와 잡지나 신문 등 매체 중심의 여성교양 연구로 나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최근 두 연구 경향은 전후(戰後), 195,60년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최근 문학사 연구의 흐름을 전후와 1960년대 지식 장과 문학제도에 대한 연구, 광의로는 문화론적 연구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문학 연구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뚜렷한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개발독재기 문화정치와 지식사에 대한 맥락에서 문학과 문학제도를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양의 매개로서의 문학, 번역,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여성문학 연구 지형도 비슷하게 자리 이동하고 있다. 전후와 1960년대 여성문학(장)과 제도, 여성교양 담론과 소설 간의 관련성, 여성잡지 등이 이 시기 여성문학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을 보여주는 두 축, 즉 195,60년대 여성문학사 연구, 여성교양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자 한다. 또한 이 같은 연구 경향들이 여성문학의 새로운 의제를 창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2,3장에서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현재적 의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다. 4,5장에서는 여성교양과 여성문학사 연구에서 1960년대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여성문학사 연구의 선회-여성문학 제도 연구

195,60년대 여성문학을 제도적 차원에서 규명한 첫 성과로 박정애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정애는 1950년대 이후 등단한 여성작가들이 1965년 한국여류문학인회 결성, 기관지 <여류문학> 발간 등을 통해 ‘여류’로서의 ‘아비투스’를 공유했다고 보았다.⁴⁾ 195,60년대 여성작가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글쓰기를 통해 지배 담론과 문화에 순응했고, 그 결과 ‘여류’의 정체성을 얻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판단의 근거가 기관지 <여류문학> 1,2호와 개별 작가들의 몇몇 작품에 한정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김양선⁵⁾과 이선옥⁶⁾의 연구는 전후 발간된 여성지인 『여원』, 『여상』, 『사상계』와 같은 전후 잡지의 문학섹션 구성, 문학비평, 신인문학상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여성문학 장의 형성원리를 규명하였다. 또한 해당 잡지들이 전후 여성문단의 형성과 여성문학의 제도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양선은 문학이 여성교양의 주요 영역이었다고 보고, 이를 ‘문학/문화 교양의 젠더화’로 정의한다. 교양-문화-문학은 서로 선(善)순환하면서 전후부터 196,70년대까지 여성대중, 여성엘리트들의 지식 및 내면을 구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이 연구들은 순문학 중심, 문예지나 사상지 중심의 엄격한 등단제도로 이루어진 기존 문단과는 달리 여성의 교양열과 대중의 망탈리테와 교호하면서 형성된 여성문학 장의 차별성에 주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⁷⁾

-
- 4)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5쪽.
 - 5) 김양선,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여성잡지와 여성문학의 공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 「195,60년대 여성-문학의 배치- <사상계> 여성문학 비평과 여성작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 6) 이선옥, 「<여원>의 중심담론과 여성들의 글쓰기-여류현상문예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 7) 노지승 역시 등단제도와 독서문화 등을 통해 여성작가와 여성독자의 형성이 여성문학 장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여성문학 장의 형성 및 제도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근·현대 여성문학사 서술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의식들을 던져주었다. 그 전 연구들은 소위 근대초기 1세대, 식민지 시기 2세대 연구에 집중되어,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에 세대별 배제 포섭의 역학이라든가, 여성문학이 기존 문학 장과의 인정 투쟁을 통해 존재증명을 해가는 과정 등을 규명하였다.⁸⁾ 해방 후, 전후 문학 장의 급격한 재편 속에서 여성문학의 존재방식, 세대교체 등을 심문하는 것은 이 여성문학사의 지속성과 변전을 살펴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문학제도 자체를 고정된 것으로 파악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제도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은 여성작가와 세대교체의 징후들을 포착하지 못 한 점, 특히 195,60년대 여성작가들의 폭발적 증가를 이들의 글쓰기 욕망이라든지 작품 경향과 관련하여 다루지 못 했다.

이와 같은 현재 난점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후, 그리고 1960년대 ‘신진’ 여성작가들의 등장이 여성문학(사) 및 여성문학 장의 변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를 이전 시기와는 변별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후 195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손창섭, 이범선 등을, 1960년대 문학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한글세대의 등장, 새로운 감수성과 문체의 실험, 이른바 4.19세대 혹은 청년 세대의 등장으로 정의하는 데 익숙해져 왔다. 전후, 그리고 1960년대 작가들의 글쓰기가 이전 시대와는 ‘다르다’는 의식은 누구나 합의하는 공통감각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달리 보면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은 성별과는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30호, 한국현대문학회, 2010.

8) 이와 같은 연구들은 남성중심의 문학사에 대한 근본적인 전복이라는 실천적 의미 외에도 신문이나 잡지, 제도 연구, 일상사나 문화사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대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기원을 끌어올리고, 신여성 작가뿐만 아니라 여성독자를 비롯한 문학 장의 역동적 과정을 규명한 연구들은 주로 <여자계>, <여성>, <신여성> 등 잡지와 <제국신문>, <독립신문>과 같은 신문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이후 전개된 여성매체 연구의 시발점 역할을 한 것이다.

무관하다. 물론 최근 잡지 등 대중문화, 사상, 교양 등에서 ‘아래로부터’ 새로운 현대를 기획했던 대중들의 망탈리테를 연구하려는⁹⁾ 시도 속에서 여성교양과 문화, 문학이 재평가되고 있지만, 주밀한 형태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중반까지 문단에 진출한 여성들의 수는 백 단위를 넘어서게 되었다.¹⁰⁾ 이런 수적 증가 외에 전후와 1960년대 여성문학을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1960년대 여성문학은 전후 여성문학과 차이가 있는가? 여성문학사에서 ‘전후’의 의식은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을 젠더화된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와 같은 부분들을 연구 의제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룰 것이다.

3. 여성교양 연구의 지류들-교양의 젠더화와 망탈리테

전후 여성교양의 사회문화적, 문학적 의미를 밝히려는 연구들은 크게 두 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후 여성교양 담론의 특성을 남성교양 담론과 비교하면서 규명한 연구이다. 김복순과 김현주의 논문을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들 수 있다.¹¹⁾ 이들은 195,60년대 여성잡지 『여원』의 여성교양 담론을 세밀하게 추적하면서 이 시기 주부교양이 여성교양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연유, 주부교양에 내포된 남성주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였다. 특히 김복순은 남성젠더의 교양 담론이 여성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9) 권보드래, 천정환, 『1960년대를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3, 8쪽.

10) 박정애, 앞의 논문, 3쪽.

11)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냉전기(知)’의 젠더」, 『여성문학연구』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18호, 대중서사학회, 2007.

쓰였던 데 반해, 여성젠더의 교양담론은 여성의 시민권 확보에 주력했으며, 남성교양이 민족, 민주, 사회와 연관되는 지식이었다면 여성지식과 교양은 문화적인 것에 한정되었다고 보는 등 교양 담론의 젠더 차이를 명료화하였다.

두 번째, 여성교양 담론과 문학(소설) 간의 관련성과 낙차를 통해 여성 교양 담론의 주체인 여성이 순응과 이탈, 전복 등 다양한 담론적 투쟁을 벌였음을 입증한 연구들이다. 김은하, 김윤경은 공통적으로 전후 여성교양 담론의 특성, 형성과정 등을 특히 문학과 관련하여 다루었다.¹²⁾ 김은하는 여성잡지를 통해 전개된 교양담론들이 여성성의 내적 자질들을 구축하는 '성장지'로 기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욕망이 발현됨으로써 가부장제 담론에 균열을 냈다는 여성 교양 담론의 양면성에 주목하였다.¹³⁾ 김은하와 김윤경은 여성잡지의 문예란이 여성독자 대중에게 교양 교육의 장 역할을 했으며, 문학이 여성교양의 대표적 분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적 글쓰기나 여성적 문학규범이 본격문학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위계화 되었지만, 여성독자들 스스로 대중문학이나 하위문학적 요소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하였다.

필자는 여성문학연구의 축이 여성교양 담론으로 이동함으로써 여성문학 연구의 지형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전후 발간된 여성지인 『여원』, 『여상』, 『주부생활』 등은 전후 여성문단의 형성과 여성문학의 제도화에 기여했다. 전후 글쓰기 욕망을 지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수가 늘자, 여성잡지는 문화나

12) 김은하, 「여성의 교양화 과정과 젠더화된 글쓰기의 이중 전략-60년대 여성잡지의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제31집, 성신여대인문과학연구소, 2012 ; 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명의 인식과 교양여성 담론-여성독자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2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13) 김은하는 주로 1960년대 여성잡지에 실린 여성 대중소설의 재독해를 통해 여성문학이 한국적 가부장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여성규율담론, 즉 국가재건기에 국가가 요구하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가정-여성을 이상화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욕망을 관리하거나 위협한 여성들을 통해 독자의 보상심리를 자아내는 양가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교양에 관심 있는 고학력 중산층 여성독자를 흡수하면서, 자기 매체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문학제도화의 장을 통해 이 여성독자들의 작가되기를 실현했다. 또한 여성작가들은 문학론, 작가론, 회고록 등의 글쓰기를 통해 문학에 관심 있는 여성독자들을 교양의 차원에서 흡수했다. 문학은 여성교양의 주요 영역이었다. 필자는 이를 ‘문학/문화-교양의 젠더화’로 정의하고자 한다.¹⁴⁾ 한편 여성작가들은 문학작품 외에 시론, 탐방기, 고민해결 상담난 등의 여러 글쓰기를 통해 자기 위상을 확장하고 당대 여성들이 지녀야 할 교양이나 규율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교양-문화-문학은 서로 선(善)순환하면서 전후부터 196,70년대까지 여성대중, 여성엘리트들의 지식 및 내면을 주조하는 역할을 했다. 때문에 여성교양 연구, 여성교양의 중심에 있는 문화/문학은 식민지 근대화, 전후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여성의 망탈리테를 규명하고,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핵심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학/문화 교양의 젠더화 양상을 살피는 것은 여성 자신의 시각과 언어로 남성중심주의 국가중심주의 질서에 한편으로는 포섭되고 한편으로는 저항하는 여성들의 지적 전통과 말하기, 글쓰기를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식민체제나 국가 주도의 성장위주 개발정책 속에서 공적 기억의 장이나 남성 지배 담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온 여성의 집단적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화 할 수 있다.¹⁵⁾ 바로 이 점에서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분석하는 실천성을 담보한다.

결과적으로 문학/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한 대중 여성, 엘리트 여성의 망탈리테를 함께 분석하는 작업은 필자를 포함한 현재 연구자들의(혹은 486세대 여성)들의 정체성 및 연구의 실천성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지식인이자 여성으로서 식민/탈식민 상황에서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어떻게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와 협상하고 타협했는지, 어떻게 지식/지성을 수용했는지를 계보적으로 추적하는 과정, 젠더에 따른 지식/

14) 김윤경 역시 언급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쓰고 있다.

15) 김양신, 앞의 책, 22-23쪽.

지성의 내용 및 수용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해석하고 (재)배열하는 수동적 작업이 아니다. 이를 통해 현재 여성-지성/지식의 위치성을 확인하고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교양 담론에 내재되어 있는 시대의 공통감각, 공통의 감정, 집단적 정체성의 내용을 밝히고, 동조와 저항, 균열의 지점들을 세심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다음 장을 보자.

4. 문학/문화 교양의 젠더화와 실천성

1960년대는 4.19와 5.16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대 산업화(근대화)’가 길항하면서 대립하는 연대였다. 1960년대에 시작된 반공주의, 국가 주도로 발명된 한국적 민족주의, 전 국민의 ‘군사화’, ‘남성화’가 전개된 시기이기도 하다.¹⁶⁾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학, 문화, 교양의 함양을 꾀하고 이에 부응하여 상업출판물(잡지, 문학전집, 백과사전 등)들이 성별, 세대별로 분화되어 출판 되었고, 문학/문화 교양에 대한 대중들의 자발적 관심이 여기에 길항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아프레걸이나 위험한 여성 담론이 사라진 자리에 경제성장의 역군으로서의 여성노동자, 합리적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하는 담당자로서의 여성, 한국적(전통적) 민족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여성이 호명되었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는 여성문학과 교양의 역학관계, 근대 이후 문학 교양열의 젠더화 양상을 계보적으로 작성하는 데 꼭 필요한 시기이다.

필자는 1960년대 여성들의 문학/문화 교양 및 대중적 취향을 형성한 잡지, 신문, 문학전집, 에세이, 영화, 백과사전류, 대중적 문학 독물류, 그 밖에 당시 특정 집단(예컨대 여학생이나 주부)을 대상으로 한 국가주도의 문학/문화 프로젝트, 상업적 미디어 주도의 문학/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방위적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예컨대 학교라는 제도적 장에서 시행

16) 권보드래·천정환, 앞의 논문, 9-10쪽.

된 반공글짓기, 새마을운동 글짓기, 자유교양문고 운동¹⁷⁾, 주부(및 성인 여성)를 대상으로 한 백일장, 새마을문고 운동, 체험수기 공모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한 편으로는 국가이데올로기를 ‘여성’에게 순치된 방식으로 주입하는 기능을 했지만, 여성 역시 동원의 대상에 머물지 않았다. 공적인 글쓰기 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일상적인 글쓰기를 실천하고 글쓰기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양 함양이 상업적 의도와 만난 매체로 ‘현대여성’, ‘주부’ 등의 접두어가 붙은 백과사전, 한국 혹은 세계문학전집에 내재된 성차 이데올로기도 분석 대상이 된다. 백과사전의 목차나 내용은 당대 여성의 일상문화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요구된 품성과 교양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한 식민지 시기, 전후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발간된 한국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의 구성, 여성작가나 작품의 비중이나 선정 기준을 분석함으로써 문학/문화 교양의 젠더화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잡지가 대중적인 문학취향의 주조에 끼친 영향력을 규명할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도 있다. 여성잡지에 수록된 수기, 작가가 쓴 순치된 내용의 감성적인 에세이류, 연재소설 등의 대중적인 문학-교양독극물은 당시 여성들의 취향이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른 하나는 여성잡지의 세대별 분화양상, 여성의 대중적 문학/문화 감수성 형성 과정 연구이다. 가령 <여학생>은 같은 시기 청소년(녀) 대상 잡지였던 <학원>이나 <어깨동무>와는 달리 ‘청소년(녀)’,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¹⁸⁾ <여학생>은 1960년대 <여원>이나 1970년대 <여성동아>와 유사하게 독서, 의상, 클래식 음악, 대중스타, 영화, 만화 등 순수 교양에서부터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17) 자유교양운동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천정환, 「교양의 재구성, 대중성의 재구성-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의 ‘교양’과 자유교양운동」, 『한국현대문학연구』36호, 한국현대문학회, 2011을 참고할 것.

18) 1965년 12월 창간된 잡지 <여학생>은 1990년 재정난으로 폐간할 때까지 약 25년 간 발간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988년 12월호(24권 12호)까지만 남아 있다.

즉 <여학생>은 잡지 그 자체로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여학생(청소년)들의 일상 문화를 총람할 수 있고, 여학생이라는 세대적, 계층적, 젠더적으로 차별적인 주체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특정 젠더-세대의 망탈리테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는 실천성을 담보한 것인가? 권보드래, 천정환은 최근 1945년 이후의 문학, 문화사를 다시 읽고 연구하는 흐름을 분석하면서 근대 초기나 식민지 시기에 대한 문화론적, 고고학적 접근에 대당할 만한 의의가 있는지 묻은 바 있다.¹⁹⁾ 두 필자는 현재 한국사회가 1960년대를 통한 재구조화의 결과이거나 잔여물이며, 해방 이후를 대상으로 한 문화연구의 출발은 문제적 근과거와 문제적 당대를 동시에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보는 듯하다.²⁰⁾ 필자 역시 일종의 문화사적 연구의 실천적 의의가 여기에 있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여성교양은 여성지와 같은 대중적 매체를 통해 만들어지고, 엘리트 여성과 여성대중들은 여성지, 문학전집, 백과사전 등을 매개로 취향의 상호교환을 꾀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시기 여성들의 망탈리테²¹⁾를 세대, 지역, 계층, 교육의 차이에 따라 세심하게 규명하면서, 예의

19) 권보드래·천정환, 앞의 책, 552쪽.

20) 권보드래·천정환, 앞의 책, 553-554쪽.

21) 우리나라에서 망탈리테사는 “심성사, 정신사 혹은 정신습속사”로 번역되지만, 용어 자체가 안고 있는 모호성과 복잡성, 다양한 용례 등을 고려할 때 프랑스 아날학과 역사학의 산물인 망탈리테는 용어의 적절한 번역이 어렵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입장이다.

김정자, 「망탈리테사의 가능성과 한계점-영국 마르크스주의 사회사가들의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서양사론』31집, 한국서양사학회, 1988, 46쪽. 주2)참조. 통상 국문학 연구분야에서 ‘공통심성’ 혹은 집단적 감정구조 정도로 수용된 망탈리테란 “지속적인 일정 시기 동안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세계관,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을 포괄하는 정신적 풍토”를 말한다. 박수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정한 태도를 취하는 집단적 태도나 이 과정에 개입되는 시대의 이데올로기, 정치사상 등 지적, 의식적인 차원의 정신작용까지 망탈리테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분모를 찾는 것은 앞서 언급한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의 대항적 성격을 밝히는 데 일조할 것이다.

5. 1960년대 여성문학사 서술의 이론적 정립-지성과 감성 사이, ‘신진’의 의미규정

1960년대 여성교양의 한 축으로서 문학담론 연구의 반대쪽에는 소위 전후에 활동한 여성작가들에 대한 개별 작가론이 있다. 그런데 이 문학제도 연구와 작가 연구 사이에는 모종의 빈틈이 있다. 1960년대 여성문학장의 실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의 경향성이랄지 주제의식을 범주화하는 것이다. 이는 전전(戰前)과 전후(戰後) 문학사의 연속성과 변별성을 규명하면서, 여성문학사를 계보적으로 서술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먼저 필자는 전후 여성문학의 출발을 박경리가 「불신시대」로 <현대문학> 추천을 받아 등단한 1957년부터로, 1960년대 여성문학의 시작을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1960.1)로 잡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시기를 구분한 이유는 박경리의 초기 단편들이 일관되게 전후 현실에 대한 여성의 지적해부와 성찰을 주제로 삼은 소위 ‘지성적’ 경향을 띠었기 때문이다. 박경리의 초기 단편 중에서도 등단작인 「불신시대」를 거론한 이유는 작품 자체가 전후의 속악한 사회상을 전형적으로 반영하였고, 전쟁미망인이자 지식인 여성이라는 박경리 초기 소설의 특징적 인물상이 처음으로 등장한 작품으로서, 등단작이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거론되는 희귀한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는 청년 세대의 낭만적 사랑, 감각적인 문체, 부르주아적 취향 등 한국문학사(그리고 여성문학사)에서 이전과는 변별되는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이 ‘박경리’의 글쓰기와 ‘강신재’의 글쓰기를 필자는 잠정

박수현, 「문학연구방법으로서 ‘망탈리테’에 관한 시론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44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280쪽.

적으로 ‘지성’과 ‘감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들의 글쓰기는 이전 세대인 최정희, 손소희, 모운숙, 장덕조, 박화성 등의 글쓰기와는 분명 차별적인 ‘새로운’ 것이다. 기존 문학 장이 ‘여류문인’, ‘여류문학’으로 추인한 최정희, 모운숙, 노천명 등은 ‘여성성’, ‘여성적 글쓰기’를 특화하고,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와 일제 말기 지배담론에 적극 동조했다. 이 작가들, 그리고 손소희, 장덕조 등은 한국 전쟁 시기와 전후에도 종군작가로 활동하는가 하면, 근대화 프로젝트의 수호자로 국가주의 담론에 부합하는 글쓰기를 하였다. 요컨대 이 세대의 여성문학은 범박한 의미에서 젠더의 가면을 쓴 계몽적 글쓰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전후 여성문학의 출발을 계몽적 글쓰기에서 탈피한 박경리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우리나라의 여류작가는 될 수 있다면 남성에게 없는 여성적 감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남성과 똑 같은 자격으로 매우 지성적인 작품을 쓸 무한한 가능성과 또 그런 작품을 써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박경리 씨는 분명히 이 가능성과 사명을 의식하고 있고 그 의욕의 심화와 더불어 자라나온 아마도 유일한 여류작가이다. 왜냐 하면 『표류도』,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의 세 작품은 그녀의 세계가 개인으로부터 집단으로, 정적 분위기로부터 사회적 드라마로 발전해 나가는 궤적을 그려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²²⁾

위 예문에서 눈에 띄는 구절은 “남성에게 없는 여성적 감성”, “남성과 똑 같은 자격으로 매우 지성적인 작품을 쓸 무한한 가능성”이다. 작품성을 재는 척도로 남성=지성(혹은 이성), 여성=감성이라는 낯익은 이분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명환에 따르면 박경리는 감성과 지성을 겸비한 ‘유일한’ 여성작가여서, 개인의 이야기에서 사회적 이야기로 작품세계

22) 정명환, 「폐쇄된 사회의 문학-박경리 씨의 세 작품을 중심으로」, 『사상계』 157호, 사상계사, 1966.3, 283-284쪽.

를 확장할 수 있었다. 박경리의 초기 단편들이 전후 현실을 남성 작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체험에 기반해 그리면서도 해부와 성찰을 집요하게 했던 점을 떠올리면 정명환의 평가는 상당히 타당하다. 하지만 필자는 ‘감성’을 겸비한 ‘지성’적 작품 쓰기가 남성적 자질이라기보다는 박경리 세대 여성작가들과 전 세대 여성작가들이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본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전 세대 여성작가들은 여성(성), 여성적 글쓰기를 기존 문단에서 자신들을 특화하기 위한 서사전략으로 삼았던 데 반해 박경리를 비롯한 신진여성작가들은 기존문단에서의 인정 투쟁보다는 전후 가부장적 국가주의의 폐해와 여성주체의 정체성을 집요하게 심문했기 때문이다.

이런 ‘박경리적’ 특성-당대 현실에 대한 지적 해부와 성찰-과 유사한 경향을 추구한 작가들로 박순녀, 구혜영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여성-청춘을 주체로 설정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개 여학생, 교사, 소설가, 잡지사나 출판사에서 일하는 지식인 여성이다. 대부분 월남과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전후’ 세대의 의식의 자장 안에 놓여 있다. 4.19를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논의되던 때에 자유로운 개인을 열망했던 여성지식인들은 당대 여성을 규율하던 지배담론에 흡수되면서 가정의 근대화를 담당할 근대적 주체-현모양처로서 재규정되었다. 하지만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청춘의 표상은 지배담론이 규정한 여성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 기혼여성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여성이고, 대부분 전쟁을 전후하여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거나 단독으로 월남하여 기존의 가족제도에 포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가족제도 바깥, 혹은 가족제도에 포섭되지 않은 인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전후나 4.19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비판적 시선을 유지하였으며, 근대 기획, 자유주의에 대한 갈망, 탈식민 기획과 같은 새로운 인식적 패러다임을 여성의 시각으로 다시 짚는다.

한편 1960년대 여성문학의 출발점으로 삼은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

가 제시한 새로움은 부르주아적 감각과 서구적 문화 취향 외에도 젊은 세대의 등장에 있다. 강신재의 「짧은 느티나무」는 감각적 표현, 낭만적 사랑이라는 낯익은 여성소설의 소재를 이복 남매간의 사랑이라는 파격적 소재로 낯설게 함으로써 1960년대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장편소설인 『청춘의 불문율』(<여원>, 1960), 『그대의 차가운 손』(<여원>, 1963.1~1964.2) 역시 부르주아 가정을 배경으로 청년-여성의 낭만적 사랑을 그리고 있다. 강신재의 소설은 구혜영이나 박순녀, 박경리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등단한 여성작가들의 작품세계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감정구조를 보여준다. 가령 박순녀의 소설이 ‘민족’이나 ‘탈식민’을, 구혜영의 소설이 넓은 의미에서의 계몽성을 지향했던 데 반해, 강신재의 소설은 부르주아 지식인 여성의 자의식이나 감수성, 낭만성에 주목하였다.²³⁾

물론 ‘지성’과 ‘감성’은 여성작가만의 특성이 아니고, 4.19를 계기로 청년 세대가 공공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성취한 근대적 시민 주체의 자질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작가들은 그것을 공공 영역보다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 낭만적 사랑이라는 사적 감정의 영역에서, 공공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목소리와 체험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젠더적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전후, 1950년대 소설과 1960년대 소설을 단절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1950년대를 박경리적 경향, 1960년대를 강신재적 경향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경리 소설은 초기 단편 이후 『표류도』(1959), 1960년대의 『시장과 전장』(1965) 등에서 전후 현실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이라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적인 글쓰기 이면에 전후 현실에 대한 불안과 우울증, 애도와 같은 감성적 측면, 낭만적 사랑에 대한 추구라는 1960년대적 특성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후 여성소설의 주요 특징인 가족제도로부터 떨어져

23) 이상 자세한 논의는 김양선의 「195·60년대 여성-문학-교양의 배치-<사상계> 여성작가 소설과 비평을 중심으로」를 참고할 것.

나온 여성 주체의 실존적 고민, 우울증, 무력해진 남성성에 대한 분노와 경멸 등의 복합적 감정은 현실에 대한 지적 해부와 예민한 감각을 함께 동반하는 것으로써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관통하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성과 감성은 대립되는 특성이라기보다는 195,60년대를 관통하는 여성작가들의 글쓰기의 두 축으로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195,60년대 여성문학을 구성하는, 양적으로는 다수이지만 문학사나 정전에서는 일종의 잉여로 치부되었던 대중 통속소설에 대한 재정의 및 재평가도 필요하다. 1960년대 여성문학 장의 또 다른 특성으로 신문, 잡지 매체의 연재소설, 장편소설, 대중소설로의 이동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여류문학의 전성기’를 우려하는 글에서 “실상 오늘의 인기소설이란 것이 거의 에로물이고 그 작가가 일부 여류들”(윤병로, 「여류문학이 가는 길」, 『현대문학』, 1969.7)이라고 개탄한 바와 같이 여성작가들의 장편소설, 대중소설 집중화 경향²⁴⁾은 1960년대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작가들의 장편 대중소설은 그 스펙트럼이 ‘에로물’로 수렴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문제의식과 주제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비유적 의미의) ‘에로물’, 즉 연애, 불륜, 간통, 복수 등의 선정적이고 통속적인 서사의 경우 196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뒤뜰고 균열을 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식민 후기 지식인의 정체성 다시 세우기 과정을 그린 최정희의 『인간사』, 전후 현실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과 대응방식을 보여주는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표류도』, 서구적인 것에 대한 동경과 전근대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유동하는 미국 유학생 출신 엘리트들의 모순된 삶의 양태를 의제화함으로써 4.19 이후 ‘한국적인 것’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시도한 손장순의 『한국인』

24) 장편소설, 연재소설, 대중소설의 흥성은 신문과 잡지 매체가 늘어난 1960년대 문학 장의 전반적인 특성이었다. 그런데도 남성작가들의 작품(활동)을 본격문학, 여성작가들의 작품(활동)을 대중문학으로 분류하고, 후자를 ‘에로물’로 폄하하는 것은 여성문학의 부상에 따른 기존 문단의 위기감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같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낭만적 사랑의 추구하고 좌절, 중산층 가정소설이라는 낯익은 계보 안에 있는 강신재, 전병순, 정연희의 소설들도 있다. 특히 이 작품들은 주 초점화 인물이 부르주아 여성이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라는 점, 이 여성들이 남편(남성)의 부도덕성, 왜곡된 남성성, 탐욕 등을 혐오,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다룸으로써 전후 부르주아 지식인 남성 중심의 질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항으로 한다. 이 장편 대중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연애와 결혼제도라는 사적 영역의 프리즘으로 1960년대 한국사회를 진단하며, 한국사회의 불안과 병폐, 위기 상황을 남성성의 위기로 표현한다. 필자는 이것이 1960년대 여성작가와 여성독자들이 공유한 공통감각이라고 본다. 즉 여성작가들의 대중소설은 전후 연애와 결혼제도를 둘러싼 가치관의 혼란과 각축양상을 부르주아 혹은 지식인에 정향된 연애소설 양식으로 풀어냄으로써 대중들의 감수성과 취향에 부합할 수 있었다. 더욱이 청소년(녀) 대상잡지인 <학원>과 <여학생>의 등장으로 세대에 따라 대중소설의 하위 장르들이 분화되기 시작했고, 독자 대중의 취향, 이들을 대중 교화의 대상으로 삼아 말하고자 하는 바 등이 세분화되었으리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대중’, ‘통속’의 함의는 재규정되어야 한다. 1960년대 사회문화적 맥락과 지식 교양의 장 변동을 둘러싼 세대, 계층, 성별의 다양성을 반영한 실질적 생산물이 대중소설이기 때문이다.

여성작가들의 장편 대중소설들은 가족제도 밖의 낭만적 사랑과 실패를 반복적으로 서사화함으로써 국가주의에 의해 재규정된 여성(성) 강화에 순응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거스르려 한다. 선정주의와 통속은 이런 양가적 전략을 가장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사적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²⁵⁾ 더욱이 욕망, 배신, 열정과 같은 ‘선정주

25) 김은하는 여성대중소설이 가부장적 규범에 억눌린 여성들의 젠더 체험을 포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집단의 무의식적 욕망을 분출시키는 전복적 요소가 있다고 평가한다. 즉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성을 순결주의, 가정성(domesticity) 이테올로기를 강요하는 가부장적 국가에 대한 히스테리적 저항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복순은 1960년대 여성대중소설을 여성이 연애의 주체로서 사랑

의'로 수렴될 수 있는 강렬한 정서는 1960년대 초 강신재적 글쓰기에서 비롯된 감각성이 '통속'과 맞물려 더 확대 생산된 경우라 할 수 있다.²⁶⁾ 실제로 강신재의 장편소설 외에도 정연희의 『석녀』(1968), 『목마른 나무들』(1963),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1962), 『독신녀』(1966), 『또하나의 고독』(1968) 등 1960년대에 쏟아져 나온 장편대중소설들은 중산층 부르주아 가족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일부일처제 가족의 정상성을 위협하는 미혼여성, 미망인의 성적 욕망을 파격적으로 그렸다. 심지어 『토지』 이전 박경리의 장편소설들, 『성녀와 마녀』, 『노을진 들녘』, 『내 마음은 호수』, 『푸른 운하』, 『가을에 온 여인』, 『재혼의 조건』, 『파시』, 『김약국의 딸들』 등은 1960년대 폭발적으로 늘어난 여성작가들의 장편, 연재 대중소설들의 장르적 관습과 유사하다. 불륜, 간통, 겁탈, 납치, 근친상간, 살인, 성녀와 악녀의 대립구도와 악녀에 대한 징벌 등의 선정적이고 비속한 주제들이 모든 소설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유사한 주제, 유사한 플롯의 장편대중소설이 특정 시기에 흥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잡지나 신문의 주 독자인 여성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상업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1960년대 국가 주도의 근대화과 개발 프로젝트가 여성에게 부르주아 가정의 수호자 역할,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할당함으로써 전후 공

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새로운 자기의식을 구성해 가는 '여성로맨스'라고 정의한다. 여성이 감각적, 감상적 힘으로 주체적으로 욕망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남성의 서사와는 다르다고 평가한다. 전자는 히스테리적 저항이라는 부정적 전복성을, 후자는 여성의 주체적 시민권을 근거로 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공통적으로 여성대중소설의 대중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구별된다.

김은하,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국가 근대화기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성 기획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302쪽 ; 김복순, 「산업화의 최종 심급과 재현의 젠더-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27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09, 438-439쪽.

26) 이와 같은 범박한 밑그림을 토대로 '지성'과 '감성'이 1960년대 중반 이후 '선정주의'로 선화한 다양한 경로들을 세심하게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들의 욕망을 규제하고 무너진 젠더 경계를 재설정하려던 시도에 여성 대중들이 심리적으로 저항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 대중 독자들은 가정성의 신화를 조롱하고, 쾌락과 일탈을 추구하는 여성인물들을 통해 대리 만족 내지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인물들의 일부는 타락하거나 처벌받고 다시 가정성의 영역으로 회귀한다는 결말에서 볼 수 있듯 심리적 보상체계로서의 대중성, 통속성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역기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응과 일탈의 양가적 자장 안에 놓인 1960년대 대중소설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마냥 수용할 수는 없었던 당대 여성들의 복잡한 자의식을 반영한 문화적 텍스트로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

6. 다시 1960년대라는 문제설정, 여성문학연구의 복수성, 여성교양 연구의 실천성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 한국여성문학연구의 경향을 여성교양연구, 특히 문학/문화 교양의 젠더화 양상, 여성문학사 연구의 의제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성교양 연구와 관련하여 필자는 최근의 연구경향이 여성교양에서 문학/문화의 특권화 된 위치를 확인하고, 문화적 기억, 공유 기억을 여성의 입장에서 전유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여성잡지 등을 매개로 진행된 여성교양 담론이 당대 여성들의 취향과 일상, 지적 전통과 정체성을 복원하는 유의미한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문학사 연구와 관련해서는 개별 작가론과 문학제도 연구의 간극을 메우면서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1960년대 여성문학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1960년대 여성문학의 특징으로 세대론적으로 '신진'의 등장, 작품경향 상으로는 '지성'과 '감성', 주제 상으로는 남성성의 위기와 여성작가와 독자 간의 공통감각을 제시했다. 청년이라는 일중

의 시대적, 세대론적 의식이 195,60년대 여성문학의 핵심 주제이며, 전후 남성성의 위기와 (탈)식민화된 현실에 대한 지적 성찰과 해부를 시도한 특성을 ‘지성’의 축에, 청년 세대의 낭만적 사랑과 부르주아의 취향을 한국문학의 장에 가져다 놓은 계열을 ‘감성’의 축에 놓았다. 이 지성과 감성은 신진 여성작가들이 이전 세대 여성작가들로부터 차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자질이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1960년대 여성문학/문화 연구에서 경계할 점도 있다. 과거 역사적 사료의 더미 속에서 자료를 구출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문학 연구와 역사 연구 혹은 사회사 연구 간의 차이를 지우는 것은 아닌지, 매 시기 여성의 문학/문화 교양의 흔적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순응과 저항의 역학관계를 분석하는 또 다른 이분법을 되풀이함으로써 예의 구성주의, 구조주의적 시각에 함몰되는 것은 아닌지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즉 자료의 쳃바퀴 안에서 공회전을 함으로써 정작 훨씬 더 복잡한 현실 속 여성의 처지나 여성문학을 둘러싼 다른 의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 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회의는 침묵당하거나 배제당해 온 존재인 여성의 주변적 정체성이 지닌 정치성을 예리하게 파악하지 못 했다는 반성으로 귀결된다.

1960년대 여성문학 장과 제도 연구, 문학/문화 교양으로서의 여성교양 연구는 앞으로도 한동안 여성문학 연구의 주요 흐름을 이룰 전망이다. 그런 만큼 이런 연구경향들이 한시적인 인기 아이템으로 ‘소비’되는 현상을 경계하면서, 실천적인 의미와 의제를 부여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1960년대 여성문학(사)를 여성-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재)서술하고, 지성과 감성 사이에서 유동하며 당대 남성성의 위기와 재구축에 대한 순응과 일탈, 저항의 양가적 면모를 보여주었던 예의 대중적으로 폄하되었던 작품들을 여성문학사의 심부로 끌어오는 작업은 그런 실천의 일부가 될 것이다.

-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대를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3.
-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 _____, 「산업화의 최종 심급과 재현의 젠더-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27호, 한국현대문학회, 2009, 438-439쪽.
- _____,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냉전기(知)’의 젠더」, 『여성문학연구』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 김양선,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여성잡지와 여성문학의 공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 _____, 「근대 여성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여성문학연구』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 _____, 「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전과 과제 -<한국여성문학학회>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 _____, 「195,60년대 여성-문학의 배치-<사상계> 여성문학 비평과 여성작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 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명의 인식과 교양여성 담론-여성독자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2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 김은하,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국가 근대화기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성 기획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 _____, 「여성의 교양화 과정과 젠더화된 글쓰기의 이중 전략-60년대 여성잡지의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제31집, 성신여대인문과학연구소, 2012.

- 김정자, 「망탈리테사의 가능성과 한계점-영국 마르크스주의 사회사가들의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31집, 한국서양사학회, 1988.
-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18호, 대중서사학회, 2007.
-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30호, 한국현대문학회, 2010.
- 박수현, 「문학연구방법으로서 ‘망탈리테’에 관한 시론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44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윤병로, 「여류문학이 가는 길」,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9.7.
- 이선옥, 「<여원>의 중심담론과 여성들의 글쓰기-여류현상문예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 정명환, 「폐쇄된 사회의 문학-박경리 씨의 세 작품을 중심으로」, 『사상계』157호, 사상계, 1966.3.
- 천정환, 「교양의 재구성, 대중성의 재구성-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의 ‘교양’과 자유교양운동」, 『한국현대문학연구』36호, 한국현대문학회, 2011.
- 최경희, 「1960년대 강신재 소설에 나타난 근대화의 ‘망탈리테’ 연구」, 『어문논총』8호, 어문학회, 2013.

〈Abstract〉

Essay on Female Culture and Women's Literary History in Post War Period

Yangsun Kim
(Hallym University)

This thesis inspected the latest studies about women's literature, specially women's literary history in 195,60's and female culture, media. These studies suggested the new issues in women's literary study.

In '2. turning point of study about women's literary history-women's literary institution', those studies dealt with the formation of women's literary field in post Korean war period, and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s literature. In '3. branches of studies about female culture-the gendered culture and common sense', studies about gendered literature/culture could investigate the women's common senses in post Korean war period, the construction of women's collective identity and could comprehend the positionality of present women's intellect/knowledge.

'4. engendering of literature/culture and its activity', '5.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women's literary history in 1960's-between intellect and sensitivity, and meaning of young generation' proposed the gendered cultural memory, which differs from men's common memory, and investigation of women's literatures in 1960's as new generation stream. That is, the appearance of young generation, 'intellect' and 'sensitivity' in tendency, and the criticism or cracking about masculinity, formation of common sense between women writers and readers in themes. And the women's popular novel performed the

ambivalence of conformity and deviation, even though it was excluded from the male-centered literary history until now.

In conclusion, the studies about female cultures and literary history in post Korean war period, and 1960's can be the historical and practical strategies, related with the women's local identity and desire for writing.

Keywords : women's literary history, female culture, gendered cultural memory, common sense, young generation, intellect, sensitivity, women's popular novel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 - 8.5 / 게재확정일 : 8.10

